

西厓 柳成龍에 대한 一 視線

- 17세기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경우

도현철*

차례

- I. 머리말
- II. 생애와 사승
 - 1. 생애와 정치활동
 - 2. 사승과 『퇴계집』 간행
- III. 『실록』의 ‘卒記’와 주자의 재상론
 - 1.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평가
 - 2. 주자의 재상론에서 본 재상 류성룡
- IV. 맺음말

【국문초록】

16세기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 서애 류성룡(1542-1607)의 생애와 17세기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 기술된 조선시대인의 시선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올바른 모습을 밝혀보려는 것이 본고의 목표였다.

류성룡은 1590년 5월 우의정을 시작으로 7년 10개월 간 재상을 맡아 조선을 이끌어 갔다. 현대 한국 역사학계에서 류성룡은 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명 재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17세기 기록인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 실려 있는 서애의 줄기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조실록』은 광해군 정권 때 복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선조수정실록』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입장이

*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반영된 사서로, 동인인 류성룡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두 기록은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로 기축옥사와 임진년과 경진년 사이의 주화오국 그리고 재상으로서의 풍모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주자학의 재상론에 비추어 재상 류성룡을 평가해 볼 만하다고 보여진다. 주자의 재상론은 君主聖學論과 재상정치론으로 요약된다. 주자는 천하의 일을 도모하는 최종결정권이 황제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군주의 專制정치, 독단정치를 비판하였다. 군주는 剛明公正한 인물을 재상으로 선택하고 그와 더불어 정사를 의논해야 한다고 하였다. 君主一人에 의한 정치 운영보다는 대다수 臣僚들의 公論을 집약하고 국정에 반영한 재상정치론을 주장하였다.

주자의 재상론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재상 류성룡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었다. 조선 사신(황윤길, 김성일)의 엇갈린 견해에 대하여 동인의 입장이 아닌 서인 측의 일본 침략 가능성을 예지하지 못한 점, 기축옥사로 동인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시시비비에 대한 명확한 판단으로 조정의 의론을 바로잡지 못한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봉당의 대립 속에서 재상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서에 류성룡에 대한 조선시대의 인식과 평가는 녹록치 않다. 이를 조선후기 당쟁의 결과로서만 설명하는 것 또한 불충분하다. 류성룡의 진면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16세기 당대의 사회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함께, 17, 18, 19세기에 이루어진 류성룡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주제어

류성룡 주자학 재상 선조실록 선조수정실록

I. 머리말

서에 류성룡(1542~1607)은 격변기였던 16세기 조선사회를 이끌어간 정치 지도자이면서 사상가였다. 조선 성리학의 원천인 퇴계의 학문을 계

승하고, 동인과 서인 혹은 남인과 북인으로 분화하는 봉당기에 합리적인 정치 운영안을 제시하여 높은 수준의 지도력을 발휘하였으며, 폭넓은 인재 등용과 제도개혁, 외교 활동을 통하여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류성룡에 대한 연구는 최근 들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의 생애와 경학사상, 시문학, 경제사상, 군사정책, 정치활동, 외교 활동에 대한 연구¹⁾, 리더십과 관련한 연구²⁾, 퇴계학과 내에서의 위상과 관련한 연구³⁾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개별 주제에 대한 미시적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임진왜란 기간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를 보다 진전시킨다는 점에서 보면, 일국사적인 시각을 넘어서 '16세기의 동아시아'라는 지평에서 조선의 16세기를 객관화하고 이를 토대로 류성룡의 대응이 갖는 의미를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와 함께 류성룡에 대한 당대인의 인식은 물론 후대인의 평가까지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견하기에도 그의 행적

-
- 1) 이재호 외, 『西厓 柳成龍의 經世思想과 救國政策』 上, 下 책보출판사, 2005 : 권오영, 「서애 류성룡 경학사상의 심학적 경향」 : 이현창, 「서애 류성룡의 경제정책론」 : 오종록, 「서애 류성룡의 군사정책과 사상」 : 정만조, 「서애 류성룡의 정치활동과 정치론」 :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류성룡의 외교활동」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 이성무, 「서애 류성룡의 생애와 사상」 : 이태진, 「'누란의 위기' 관리 7년 10개월」,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 허남린, 「명분과 실리의 정치역학 - 임진왜란 시기의 강화논의를 둘러싼 유성룡의 역할과 정쟁 -」, 『안동학연구』 11, 2012.
 - 2) 송복, 『위대한 만남 서애 류성룡과 임진왜란』, 지식마당, 2007 : 이덕일, 『난세의 혁신 리더 유성룡』, 역사의 아침, 2012.
 - 3) 徐廷文, 「『퇴계집』의 初刊과 月川·西厓 是非」, 『북악사론』 3, 1993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의 정치적 분화 - 유성룡·정경세학맥과 정구·장현광학맥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40, 2007 : 최중호, 「『퇴계집』 刊行 과정에서의 西厓 柳成龍의 役割 - 退溪學派 내에서의 西厓 柳成龍의 位相 究明의 一端 -」, 『民族文化論叢』 40, 2008 : 정재훈, 「퇴계 이황의 학파 형성과 역사적 위상의 정립 과정」, 『역사문화논총』 4, 2008.

과 사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조선후기 당쟁의 과정에서는 自黨의 입장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까지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애 류성룡에 대한 조선시대의 다양한 시선과 그 이면을 살펴보는 것은 그의 진면목을 확인하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사회를 이해하는 방증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卒記’에 기술된 류성룡에 대한 17세기의 ‘공통된 시선’을 제시하고 이를 朱子의 宰相論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활발한 토론을 위한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생애와 사승

1. 생애와 정치활동

서애 류성룡은 중종 37년 외가인 경상도 義城縣 沙村里에서 부친 류중영과 모친 안동 김씨 사이에 3남으로 태어났다. 서애 집안은 고려시대부터 안동부 풍산현에 터를 잡고 살면서 지방 호장층에서 중앙 사족으로 진출하기도 하였지만, 가문의 정치경제적 기반이 확고하게 갖추어진 것은 조부인 류공작 때부터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관직에 진출하였을 뿐 아니라 혼인을 매개로 경제적 기반이 확충되었기 때문이다. 1527년에 작성한 유공작의 男妹和會文記에 의하면, 노비 33구 가운데 부변노비는 8구이고 모변노비는 25구이며, 군위 소재 토지는 류성룡의 조모변에서, 의성과 비안 소재 전답은 모변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류성룡은 모변 재산을 받기 전인 1567년(명종 22)에 登科條 노비 6구와 전답 1석 27두락을 이미 별

급 받았고 1586년에는 처가로부터 노비 90여구를 받았는데 그 노비의 소재지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었다.⁴⁾

류성룡은 1558년(명종 13) 광평대군 후손인 전주 이씨 李峒의 딸과 혼인하였다. 1561년 8월에 퇴계 이황 선생을 찾아가 수개월 머물면서 『근사록』 등 성리학을 배웠다. 1563년 가을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7월에 생원 1등, 진사 3등에 합격하였다.

1568(선조 2년) 인종을 文昭殿에 봉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류성룡은 국왕의 정통성을 존중하는 입장, 즉 인종을 연은전이 아닌 문소전에서 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켰다. 주지의 사실이듯이 문소전은 세종 때에 창건되어 태조와 四親을 봉안한 이후 역대 임금들의 신주가 모셔진 정전인 반면, 延恩殿은 성종이 왕위에 오른 적이 없었던 부친 덕종을 추존하여 모시기 위해 마련한 별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인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정황후와 윤원형은 인종의 神主를 격이 낮은 延恩殿에 모셨던 것이다.⁵⁾

당시는 을사사화의 여파로 사람이 위축되어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었지만,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하자 이황이 앞장서 명종과 인종을 모두 문소전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면서⁶⁾ 뒤늦게 논란이 되었다. 영의정 이준경이 ‘祖宗에서 정한 것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반대하였지만, 류성룡은 명종과 인종을 모두 문소전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하였고⁷⁾ 사람들의 지지를 지렛대 삼아 인종의 문소전 奉祀를 실현하였다.⁸⁾

4) 이수건, 『영남학과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157-160쪽 : 이성무, 「서애 류성룡의 생애와 사상」,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11-16쪽.

5) 이덕일, 위의 책, 34-35쪽.

6) 『退溪集』 권7, 擬上文昭殿議

7) 『西厓集』 年譜

8) 이덕일, 위의 책, 34-35쪽.

선조 22년(1589) 10월에 동인인 정여립 등이 모반을 꾀하였다 하여 받고된 정여립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기회로 정철 등 서인은 동인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였지만, 서인의 지나친 세력 확대를 염려한 선조는 정철을 파직하는 것으로 옥사를 미봉하였다. 이 사건은 이후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죄인들을 문초하는 과정에서 류성룡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정여립 사건에 연루된 부제학 백유양이 정여립에게 보낸 편지에서 류성룡에게 다시 관직에 나가도록 종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지방에 있던 류성룡은 ‘정여립이 집으로 두 번 찾아 온 적이 있었는데도 역모를 미리 알아채지 못한 죄’를 들어 자핵소를 올려 사직하기를 요청하였다. 자핵소에서 ‘이경중 한 사람만이 정여립을 극력 배척했고 나머지는 같이 잘 어울렸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이경중을 제외한 대다수 사대부들이 정여립과 어울렸으므로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대부들을 정여립에 동조한 역적으로 모는 것은 무리라는 의미가 함축된 것이었다.⁹⁾ 선조는 사직을 허락하기는커녕 류성룡을 이조판서에 제수하였다.¹⁰⁾ 사건의 수습 과정에서 정여립과 친분이 있는 정인홍은 이경중을 탄핵했다¹¹⁾는 이유로 삭탈관직 되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기하는 단초가 되었다.

9) 류성룡과 정인홍은 정치활동에 차이가 있었다. 류성룡 졸기에 의하면 “(류성룡)은 재상의 자리에 올라서는 국가의安危가 그에 의지하였는데, 정인홍과 의논이 맞지 않아서, 인홍이 배양 공손홍이라 배척하였고, 성룡 역시 인홍이 속이 좁고 편벽됨을 미워하니, 士論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서로 공격하는 것이 물과 불 같았다(『宣祖實錄』 권211, 30년 5월 을해)고 하였다. 정인홍의 정치론에 대한 최근의 연구로 다음이 참고된다.(정호훈, 『爲民가 休息의 정치론 - 來庵 鄭仁弘의 정치의식과 현실인식 -』, 『역사와 경계』 81, 2011)

10) 『선조수정실록』 권23, 22년 12월 갑술(25책-589면) “成龍上疏待罪, 略曰 ……”

11) 『선조실록』 권15, 14년 3월 경오(21책-373면) : 『선조수정실록』 권15, 14년 4월 갑자(25책-492면)

류성룡은 1590년 5월 우의정을 시작으로 좌의정, 곧 영의정 겸 도체찰사를 겸직하였고 최종 파직된 1598년 11월까지 7년 10개월 간 재상으로 조선을 이끌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임진왜란이라는 국란의 시기가 포함되어 있었다.

1592년 4월 왜병이 북상하고 선조가 파천하게 되자, 류성룡은 이산해·이양원과 함께 세자를 정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로 광해군이 세자로 세워졌다. 1593년 정월 명 장군 이어송이 평양을 탈환하고, 같은 해 4월 서울을 수복했으며, 10월 어가가 서울에 도착하였다. 1594년 11월 명나라 참장 胡澤이 사신으로 와 일본을 설득해 封貢케 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조선을 도운 병부상서 석성 등이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 곤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和議를 주선하라는 것이었다. 이때 류성룡은 명나라가 조선에 등을 돌리면 의지할 데가 없게 되니 그들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잘 대접해 보내자고 건의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1597~98년 이이첨과 조목에 의해 ‘화친을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쳤다[主和誤國]’는 거센 비판을 불러왔다.

1596년 7월에 이몽학의 난이 발생하였지만, 류성룡이 위관의 직임을 맡아 공평하게 판결한 결과 억울하게 연루된 자가 적었다고 한다. 1598년(선조 31년) 9월 主事 丁應泰가 와서 經理 楊鎬의 죄 20여 가지를 들어 명나라에 보고했다. 이에 조선에서는 최천건을 파견하여 양호를 옹호하였으나 실효가 없자, 대간이 時任大臣을 파견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¹²⁾고

12) 이러한 사실은 후에 복인 계열의 류성룡 비판에서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성균관 생원 이호신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丁應泰의 參奏를 보니 차마 입으로 읽지 못하겠습니다. …… 신들은 삼가 들으니 영의정 류성룡은 이번의 擧措를 평범하게 보고서 곧장 자신이 나서서 가지 않고 온갖 구실로 회피하기를 피하여 다른 宰臣으로 대신시키려 하면서 단지 전하가 일을 보기만을 요청하여 책임만 모면하려는 계획을 한다 합니다. …… 류성룡은 본시 올바르지 못한 인물로서 교묘한 말과 아첨하는 얼굴을 가지고 온 세상을 크게 그르치고 조정의 기강을 멋대

주장하였다. 이는 류성룡이 직접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조는 좌의정 이원익을 보냈고 정응태가 대노하였다. 이에 이이첨 등은 류성룡이 명나라에 가지 않은 것을 비난하였고, 11월 파직되었다.¹³⁾

1599년 3월부터 옥연서당에 초옥 3칸을 짓고 거처하였다. 1600년 3월에는 『퇴계연보』를 작성하였다. 1601년 3월 형 류운룡이 죽고 연이어 모친상을 당하였다. 거상을 하는 과정에서 『愼終錄』과 『永慕錄』, 『喪禮考證』을 저술하였다. 1605년 1월에 「知行說」과 「知行合一說」을, 9월에는 「帝王紀年錄」¹⁴⁾을, 1606년 3월에는 『聖諭錄』을, 병이 심해서 돌아가기 직전인 1607년 3월에는 『勸化錄』을 찬술하였다. 『懲愆錄』 역시 이 무렵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된다. 1607년 4월에 세상을 떠났다.

2. 사승과 『퇴계집』 간행

류성룡은 퇴계 생전에 학문을 전수받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고 퇴계의 문인·제자들과 함께 『퇴계집』을 간행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로 농락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왜적과는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인데 和란 한 글자로 국가의 큰 일을 그르치고 있으니 宋나라의 진회가 어찌 이보다 더하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의견과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자기의 의논에 빌붙는 자는 끌어들이니 政치를 論辨하고 思慮하는 臺閣의 職任은 모두 아첨하는 무리들이고, 명나라 관원을 接伴하는 御使는 고루하고 편벽되지 않은 무리가 없습니다. 백성의 힘을 약탈하여 백성의 힘은 고갈되었고, 함부로 토목 공사를 일으켜 국가의 비용은 탕진되었으며, 청탁하는 무리들이 문에 가득하여 뇌물을 공공연히 주고 받습니다. 예컨대, 조목·정인홍 같은 무리가 시골에서 은거하며 경륜을 품은 채 세상에 나서지는 못하는 것은 모두 이 奸人이 그들의 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선조실록』 권104, 31년 9월 경술(23책- 509면) “成均館生員李好信等上疏曰……”).

- 13) 이성무, 「서에 류성룡의 생애와 사상」,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44-49쪽.
 14) 중국과 우리나라를 합하여 一錄을 만들었는데, 중국은 唐堯 갑진년부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는 단군 무진년부터 시작하여 서로 비교해서 기술하여 역대에 미쳐 읽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었으나, 완성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퇴계집』의 편집원칙과 관련하여 월천 조목(1524-1606)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하였고 이러한 입장은 다시 그의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선조 6년(1573) 선조의 명에 의하여 재경 문도인 류성룡이 중심이 되어 『퇴계집』 간행을 추진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였다. 이에 경상도에 있던 조목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제자들이 각자 정리한 자료를 기반으로 草本을 완성하였다. 그런데 선조 19년 류성룡은 조목에게 “편집 원칙은 次第가 분명해야 하고 상세하고 간명한 것이 모두 적당해야 한다.”¹⁵⁾고 주장하면서 刪節을 요청하였다. 선조 20년 5월 퇴계의 제자들이 모임을 가지고 산절에 부정적인 조목과 산절을 주장하는 류성룡의 의견을 김성일(1538-1593)이 중재하여 일단 류성룡의 의견에 따라 산절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목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류성룡이 주도하여 中草本 간행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선조 22년 기축옥사와 선조 25년 임진왜란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퇴계집』은 선조 33년(1600) 조목의 주도로 간행되었다. 조목은 류성룡이 산절한 中草本을 무시하고 산절하지 않은 草本을 기준으로 간행하였다. 이것이 庚子本이다. 경자본이 간행되자마자 류성룡을 중심으로 改刊이 논의되었고 류성룡의 제자인 정경세 등이 이를 교정하였지만 改刊을 하는데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¹⁶⁾

『퇴계집』의 간행은 단순히 편집원칙에 대한 제자들 사이의 이견대립을 넘어서서 퇴계학의 嫡傳 논의¹⁷⁾이면서 동시에 중앙정계에서 정과 간

15) 『西厓全書』 권10, 與趙士敬(丙戌)

16) 辛承云, 「『퇴계집』 해제」 『韓國文集叢刊』 解題 2, 1998, 7-13쪽.

17) 徐廷文, 「『퇴계집』의 初刊과 月川·西厓 是非」, 『북악사론』 3, 1993 : 최중호, 「『퇴계집』 刊行 과정에서의 西厓 柳成龍의 役割 - 退溪學派 내에서의 西厓 柳成龍의 位相 究明의 一端 -」, 『民族文化論叢』 40, 2008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의 정치적

의 대립과도 직결되는 것이었다. 조목을 중심으로 한 예안의 향촌 사립은 북인과 연계하기도 하였다. 선조 31년 6월 북인에서는 류성룡을 ‘조목과 정인홍의 중앙 진출을 막고 화친을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친 인물’로 탄핵하였고¹⁸⁾ 12월 류성룡은 삭탈관직 되었다.

조목은 이보다 앞서 선조 30년(1597) 여름 류성룡에게 편지를 보내 “相國이 평생 동안 성현의 책을 읽고 배운 것이 다만 이 ‘講和誤國’ 녀자란 말이요?”라고 비판하였다.¹⁹⁾ 조목의 비판은 향촌 사회의 대일감정 혹은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었고 북인의 류성룡 비판을 촉발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당시 조목은 서원을 매개로 사립을, 정인홍은 향약을 통해 경상우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류성룡에 대한 비판은 향촌에서의 지지기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퇴계집』 간행 과정에서 류성룡과 조목은 정국 운영상의 인식 차이를 노정하고 있었다. 류성룡은 일찍부터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중앙집권화에 의한 향촌 지배를 지향하면서 조제론적 봉당관에 입각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퇴계집』을 간행하되 閑漫한 문자나 가득한 책이 아니라 분명하고 간결한 정치교과서로서, 나아가 『주자대전』과

분화 - 유성룡·정경세 학맥과 정구·장현광 학맥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40, 2007.

18) 북인의 류성룡 탄핵은 선조 31년 9월 성균관 생원 이호신 등이 류성룡 비판을 통하여 본격화된다. 이호신 등은 류성룡은 군부를 원수를 갚아야 하는데도 ‘和’로 국가의 대사를 그르쳤고 이는 진회와 같은 奸人과 같으며, 植黨, 國用의 공궤를 초래했으며, 정인홍 조목과 같은 인재의 등용을 막았다고 비판하였다(『선조실록』 권 104, 31년 9월 경술). 북인 정인홍의 정치론에 대해서는 다음의 최신의 연구가 참고된다(정호훈, 『爲民과 休息의 정치론 - 來庵 鄭仁弘의 정치의식과 현실인식』 『역사와 경계』 81, 2011).

19) 『月川集』 附錄 嘉善大夫工曹參判月川趙先生神道碑銘并序(정운)(『韓國文集叢刊』 38) “乃抵書曰, 相國平生讀聖賢書, 所得只此講和誤國四字耶.” : 구덕회, 『선조조 후반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韓國史論』 20, 1988, 201쪽 : 徐廷文, 위의 논문, 215-217쪽.

같은 성리학의 보전으로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²⁰⁾ 이는 류성룡이 『퇴계집』에서 중요시한 부분이 선조와 퇴계와의 관계, 곧 향촌보다는 중앙에서의 관료 활동이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조목은 퇴계의 학통을 계승했다는 자부심으로 산림적 자세와 향촌사회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는 퇴계가 죽은 1570년까지 30년 동안 퇴계 문하에서 수학하였고 퇴계가 죽은 후에는 도산에서 제생을 모아 강학하였다. 퇴계 제자로서의 그의 자부심은 『퇴계집』 전고수록 원칙과 향촌 주관의 문집 간행 요구로 이어졌다. 그는 향촌 내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퇴계집』을 간행함으로써 향촌 사회의 결집과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조목은 류성룡의 ‘調劑論의 朋黨觀’에 반대하고 조선 초기 이래로 지속된 ‘다른 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부정적 봉당관’을 견지하였는데, 이는 정인홍의 입장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었다.²¹⁾

Ⅲ. 『실록』의 ‘卒記’와 주자의 재상론

1.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평가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 역사서이지만 예외적으로 기전체의 열전에 해당하는 줄기를 두고 있다.卒이란 말은 신분적으로는 대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처음과 끝이 일관[有始有終]된 군자의 죽음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약 2,100여 개의 줄기가 수록되어

20) 徐廷文, 위의 논문, 238쪽.

21) 徐廷文, 위의 논문, 215-217쪽.

있는데, 서술 방식은 졸, 가계, 행적, 시호, 평결(史臣曰), 자손의 순서로 소개되어 있다.²²⁾

실록에는 동일한 국왕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개의 기록이 존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宣祖實錄』과 『宣祖修正實錄』, 『顯宗實錄』과 『顯宗改修實錄』, 『景宗實錄』과 『景宗修正實錄』이 그것이다. 이는 조선후기 당쟁으로 인해 찬술과정에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기형적인 결과이다. 그 때문에 동일한 인물의 졸기에 대한 평가가 상이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류성룡의 경우 실록의 평결은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모두에 실려 있다.

『선조실록』은 광해군 원년(1609) 7월부터 동 8년(1616) 11월에 완성되었다. 총재관은 서인 이항복이 담당하다가 뒤에 복인奇石(23)이 대신하였다. 『선조실록』은 계축옥사와 그에 이은 폐모론이 진행될 무렵 대북정권의 지지기반이 좁아지고 있는 사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²⁴⁾ 『선조실록』은 선조 즉위년(1567) 7월부터 동 41년(1609) 2월까지의 역사를 221권으로 기록하였다. 그런데, 선조 25년 4월 임진왜란 이후 약 16년간의 기록이 195권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이전 약 25년 간의 기록은 26권에 불과하다. 이는 임진왜란 이전 춘추관 일기와 승정원일기 및 각사등록 등 국가 기록이 모두 난중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²⁵⁾

『선조수정실록』은 『선조실록』이 간략할 뿐 아니라 당파관계로 誣筆을 가하였다는 비판에서 수정 편찬되었다. 인조 원년(1623) 8월 경연에서 이

22) 신현규, 「『朝鮮王朝實錄』 列傳 형식의 卒記 試考」, 『語文論集』 27, 중앙어문학회, 1999.

23)奇石(1567-1624)은 광해군 초반 영의정으로, 폐모살제에 반대하였는데, 인조반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이괄의 난 때 자결하였다.

24) 吳恒寧, 「<<宣祖實錄>> 修正攷」, 『韓國史研究』 123, 2003, 89쪽.

25) 申奭鎬, 「朝鮮王朝實錄의 編纂과 保管」, 『韓國史料解說集』, 韓國史學會, 1964, 49-54쪽.

수광·이정구·임숙영 등은 『선조실록』은 賊臣의 손에 편찬된 사실이 왜곡된 역사(誣史)'라고 주장하였고, 이런 이해가 확산되면서 수정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갔다. 하지만 이괄의 난이 일어나 인조반정 세력의 정통성 문제가 제기되자 『광해군일기』의 편찬이 보다 시급한 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 인조 19년(1641) 2월 이식의 상소로 인해 『선조실록』의 수정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²⁶⁾ 이식(1584-1647)은 광해군대에 간열들이 왕명을 독단하여 이전 기록을 몰래 삭제하고 무필을 가하여 시비와 명실을 모두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하면서 『선조실록』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임란 이후의 기록은 수정을 가하고 전란으로 소실된 임란 이전 기록은 새로운 자료를 모아 보강하도록 하였다. 이때 후자의 경우 이식의 干與本에 실려 있는 '修史綱領'을 통하여 수집 대상 자료 목록을 파악할 수 있다.²⁷⁾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는 동일한 인물에 대하여 상반된 평가를 한 경우가 많다. 전자는 복인의 입장이, 후자는 서인의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서인인 정철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조실록』에는 정철에 대해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고 행동이 경망하고 농담과 해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하였다. …… 죽을 때까지 비방이 그치지 않았다”²⁸⁾고 평가되어 있는 반면, 『선조수정실록』은 “소인이 과연 그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그는 단지 결백성이 지나쳐 의심이 많고 용서하는 마음이 적어 일을 처리해 가는 지혜가 없었을 뿐이었다.”²⁹⁾고 하면서 여러 가지 실례를 들어 정철을 옹호하고 있다.

26) 『선조실록』 권42, 19년 2월 정사(35책-109면) “大提學李植上劄曰, ……”.

27) 吳恒寧, 위의 논문, 72-79쪽.

28) 『선조실록』 권46, 26년 12월 경오(22책-193면)

29) 『선조수정실록』 권27, 26년 12월 경술(25책-644면)

특이한 것은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이 이처럼 동일한 인물에 대해 상이한 평가를 하고 있는 속에서도 류성룡에 대해서만은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류성룡이 동인으로서 서인과 대립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복인 정권 특히 이산해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선조실록』에 실려 있는 류성룡에 대한 줄기는 다음과 같다.

전의정부영의정 풍원부원군 류성룡이 죽었다. 사신이 말하기를 류성룡은 조정에 선 지 30여 년 동안 재상으로 있는 것이 10여년이었는데, 임금의 돌아봄이 조금도 쇠하지 않아 귀를 기울여 그의 말을 들었다. 경연에서 선한 말을 올리고 임금의 잘못을 막을 적엔 겸손하고 뜻이 극진하니 이 때문에 상이 더욱 중히 여겨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류모의 학식과 기상을 보면 모르는 사이에 마음으로 복종할 때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규모가 조금 좁고 마음이 굳세지 못하여 이해가 눈앞에 닥치면 흔들림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므로 임금의 신임을 얻은 것이 오래였지만 직간했다는 말을 들을 수 없었고 정사를 비록 專斷하였으나 나빠진 풍습을 구하지 못하였다. ① 기축년의 변에 權姦이 禍를 요행으로 여겨 逆獄으로 함정을 만들어 무고한 사람을 엮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일망타진하여 산림의 착한 사람들이 잇따라 죽었는데도 일찍이 한마디 말을 하거나 한 사람도 구제하지 않고 상소하여 자신을 변명하면서 구차하게 몸과 지위를 보전하기까지 하였다. ② 임진년과 정유년 사이에는 군신이 들관에서 자고 백성들이 고생을 하였으며 두 陵이 옥을 당하고 宗社가 불에 탔으니 하늘까지 닿는 원수는 영원토록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도 계획이 굳세지 못하고 國是가 정해지지 않아서 和議를 극력 주장하며 通信하여 적에게 잘 보이기를 구하여서 원수를 잊고 부끄러움을 참게 한 죄가 천고에 한을 끼치게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義士들이 분개해 하고 言者들이 말을 하였다. 부제학 김우옹이 伸救하는 상소 가운데 ‘성룡은 역시 얻기 어려운 인물입니다마는 ③ 宰輔의 器局이 부족하고 大臣의 風力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정확한 논의이다. 무술년 겨울에 辨誣하는 일을 어렵게 여겨 사피함으로써 파직되어 田里로 돌아갔다. 그후에 職牒을 돌려주었고, 상이 그의 병이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는 의관을 보내 치료하

게 하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죽은 것이다.³⁰⁾

그리고 『선조수정실록』의 류성룡 졸기 기록은 다음과 같다.

봉원부원군 류성룡이 죽었다. 류성룡은 안동 출신으로 호는 서애이며 이황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일찍부터 중망이 있었다. 병인년에 급제하여 청요직을 두루 거치고 경연에 출입한 지 25년 만에 드디어 재상이 되었으며, 계사년에 수상으로서 홀로 京外의 기무를 담당하였다. 명나라 장수들의 咨文과 揭帖이 주야로 폭주하고 諸道の 奏牘이 이곳 저곳에서 모여 들었는데도 성룡이 좌우로 酬應함에 그 민첩하고 빠르기가 흐르는 물과 같았다. 당시 신흠이 비변사의 낭관으로 있었는데, 문득 신흠으로 하여금 붓을 잡고 부르는 대로 쓰게 하였는데, 문장이 오래도록 다듬은 것과 같아 일찍이 點綴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신흠이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와 같은 재주는 쉽게 얻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③ 局量이 협소하고 持論이 넓지 못하여 봉당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자기와 의견을 달리 하면 조정에 용납하지 않았고 임금의 득실을 거론하면 또한 감히 대항해서 바른대로 고하지 못하여 大臣다운 風節이 없었다. 일찍이 임진년의 일을 追記하여 이름하기를 『징비록』이라 하였는데 세상에 유행되었다. 그러나 식자들은 자기만을 내세우고 남의 공은 덮어버렸다고 하여 이를 기롱하였다. ① 이산해가 그 아들 이경전과 함께 오래도록 廢斥되어 있으면서 성룡을 원망하여 제거하려 하였다. 그 결과 ② 무술년에 主和하여 나라를 그르치고 辨誣의 使行을 피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고 떠나게 되었는데, 향리에 있는 지

30) 『선조실록』 권211, 40년 5월 을해(25책-334면) “前議政府領議政豐原府院君 柳成龍卒。史臣曰，…… 成龍立朝三十餘年，爲相者十年，上眷不衰，傾耳以聽。獻替經幄，言巽而意盡，以此，上尤重之，嘗曰，“予觀柳某學識氣象，不覺心服之時多矣。”然規模少狹，脊樑不牢，利害當前，未免動搖。故得君雖久，鮮聞謇諤之言，爲政雖專，不救偷靡之習。己丑之變，權姦幸禍，以逆獄爲機，羅織無辜，網打異己，山林善人，相繼殄戮，而未嘗發一言救一人，而至於分疏自明，苟保身位。壬辰丁酉之間，君臣拔舍，赤子殷塗，兩陵遭辱，宗社燒夷，通天之讎，九世必報，而謀猷不競，國是靡定，力主和議，通信求媚，使忘讐忍恥之罪，貽羞恨於千古。由是，義士憤惋，言者藉口，副提學金宇顛申救疏中有曰，‘成龍亦難得之人，但乏宰輔器局，無大臣風力。’斯爲的論也。戊戌冬，以辭難於辨誣之事，削其職，歸田里。其後還授職牒，上聞其病危，遣醫治之。及是卒。”

10년 만에 죽으니 나이가 66세였다. 류성룡은 임진난이 일어난 뒤 건의하여 처음으로 훈련도감을 설치하였는데, 戚繼光의 『紀效新書』를 모방하여 砲射殺의 三手를 뽑아 군용을 갖추었고 외방의 山城을 修繕하였으며 鎖管法을 손질하여 備禦策으로 삼았다. 그러나 성룡이 자리에서 떠나자 모두 폐지되어 실행되지 않았는데, 유독 훈련도감만은 존속되어 오늘에 이르도록 그 덕을 보고 있다.³¹⁾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류성룡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두 기록은 이러한 평가의 근거로 ① 기축옥사에 대한 대응 ② 임진년과 정유년 사이의 주화오국 ③ 재상으로서의 풍모 등 3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 제시된 기축옥사(선조 22년, 1589)는 동인인 정여립 등이 모반을 꾀하였다 하여 발생하였다. 이를 기회로 정철 등 서인은 동인의 세력을 약화시키려 하였지만, 서인의 지나친 세력 확대를 염려한 선조는 정철을 파직하는 것으로 옥사를 미봉하였다. 이 사건은 이후 동인과 서인의 갈등이 심화되는 계기가 되었다.³²⁾

『운암잡록』³³⁾은 류성룡이 임진왜란 이후 동서분당의 시말을 남인 입

31) 『선조수정실록』 권41, 40년 5월 계해((25책-701면) “豐原府院君柳成龍卒。成龍，安東人，號西厓，從學於李滉之門，早負重望。丙寅擢第，數歷華顯，出入經幄二十五年，遂入相，癸巳以首相，獨當中外機務，天將咨揭，日夕旁午，諸道奏牘，東西交集，成龍左右酬應，敏速如流。時申欽爲備局郎，輒使欽操筆，口呼書之，文如宿構，未嘗點綴。欽每語人曰，“其才未易得也。”然局量狹小，持論不弘，不能去朋黨之心，稍涉異己，則不容於朝。君舉得失，亦不敢抗言正告，無大臣風節。嘗追記壬辰事，名曰懲愆錄，行于世，識者以其伐己而掩人譏之。李山海與其子慶全，久在廢斥，銜成龍，謀欲去之。戊戌以主和誤國，厭避辨誣之行，被劾而去，在野十年而卒，年六十六。成龍於壬辰亂後建議，始置訓練都監，倣戚繼光紀效新書，抄選砲射殺三手，以爲軍容，修繕外方山城，修鎖管法，以爲備禦之策，成龍去位，皆廢不行，獨訓練都監仍存，至今賴之。”

32) 최근의 연구는 선조 22년 정여립 모반 곧 기축옥사에 대하여 『선조실록』은 서인인 정철이 치죄를 확대하였다는 붕당의 참여한 대립의 연장선상에서 기록하고 있는 반면 『선조수정실록』은 사건의 전개만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오향녕, 위의 논문, 81쪽).

33) 『西厓全書』 권3, 『운암잡록』 : 『大東野乘』 『운암잡록』

장에서 정리한 책이다. 여기에서 류성룡은 기축옥사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산해(1539-1609)³⁴⁾와 정철(1536-1593)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개진하고 있다. 예컨대 “이산해는 원래 정철과 잘 지냈는데 정철이 공격을 받을 때 이발과 함께 정철을 공격했다. 그러다 기축옥사 때 정철이 입조하게 되자, 이산해가 화를 면하기 위해 정철로 위관에서 쫓겨난 정언신을 대신하게 하고 자기의 아들 이경전을 정철의 집에 보내 밤낮으로 노예처럼 봉사하게 하면서 ‘당신을 공격한 것은 김응남과 류성룡 등이요, 나는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이는 이산해와 정철이 결탁하여 자신이 위기에 빠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류성룡은 동인 또는 남인으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국운영의 경우도 동인이나 남인 위주로 하면서 서인이나 북인과 공조하는 입장을 취했다.³⁵⁾

류성룡을 비판하는 또 하나의 논거는 화친을 주장하여 나라를 그르쳤다는 ‘主和誤國’(선조 31, 1598. 11월)이다. 임란이 끝나고 북인은 류성룡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류성룡이 기미설을 주장하고 강화를 이끌어 당시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선에 파병한 명나라는 전쟁을 한반도로 국한하는 가운데 조기에 강화협상을 맺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따라 1594년 명군 지휘부는 조선도 강화를 원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릴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명은 벽제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참패하자 일본군과의 결전을 포기하고 강화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낸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당시 명에게는 朝鮮援軍 → 募兵 → 增稅 → 民困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었다. 명군지휘부는 명

34) 이산해는 사장학을 바탕으로 경제에 비중을 두고 권과 권의를 중시하며 군주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융통성이 있는 정치를 지향하였다(설석규, 『선조대 정국과 이산해의 정치적 역할』, 『아계 이산해의 학문과 사상』, 지식산업사, 2010, 240-247쪽).

35) 이성무, 『서에 류성룡의 생애와 사상』,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78-79쪽.

조정에서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강화협상을 성공시키려 하였고, 조선으로 하여금 ‘강화를 원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올리게 하였다.

조선은 명군의 이러한 요구를 회피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재상이었던 류성룡은 불가피하게 ‘위엄으로써 완악을 제어하고, 계교로써 기미하여 화란을 없애는 것은 예로부터 제왕이 오랑캐를 방어하는 큰 방책입니다. 오직 황제께서 선택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³⁶⁾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주문을 올렸다. 이를 근거로 류성룡이 主和誤國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류성룡 자신도 和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다³⁷⁾고 하면서, 힘으로 적을 도모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 기미책에 따라 적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했던 교육지책이었다고 주장하였다.³⁸⁾

2. 주자의 재상론에서 본 재상 류성룡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공통된 지적은 류성룡이 재상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선조실록』은 이를 ‘宰輔의 器局이 부족하고 大臣의 風力이 없다.’고 기술하고 있고, 『선조수정실록』은 ‘局量이 협소하고 持論이 넓지 못하여 봉당에 대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면 조정에 용납하지 않았고 임금의 특실을 거론하면 또한 감히 대항해서 바른대로 고하지 못하여 大臣다운 風節이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의 평가와는 정반대로 류성룡이 임진왜란을 포함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행적을 통해 그

36) 『西厓全書』 권3, 陳賊情奏文

37) 『西厓全書』 권10, 答趙士敬(1597)

38)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류성룡의 외교활동」,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296-300쪽.

가 명재상이었음을 확인시켜 준다. 사림의 주장을 대변하면서도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고 재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이 그 근거이다.

첫째,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이다. 선조 24년 2월 이순신을 전라도 좌수사로, 권율을 광주목사로 추천하고³⁹⁾ 하층민이라도 능력이 있거나 국가에 공이 있으면 발탁하도록 하였다. 둘째, 국방체제를 계승방략 체제에서 진관체제로 바꾸도록 하였다. 계승방략 체제는 유사시 각 수령이 군사를 이끌고 본진을 떠나 멀리 배정된 방어지역으로 이동하여 중앙에서 파견된 京將의 지휘를 받는 체제로, 한번 무너지면 더 이상의 대비책이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류성룡은 진관체제, 곧 巨鎭을 중심으로 몇 개의 제진을 묶어 독립적으로 도 내의 감사와 병사가 自戰自守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국가의 조세 수취에서 대동법을 실시하여 농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선조 27년, 1594년) 공납을 폐지하고 쌀로 통일해 백성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넷째, 봉당론적 調劑論을 통하여 봉당간의 화합에 노력하였다. 율곡은 봉당에 대하여 주자의 양시양비론을 수용해 조제론을 주장하였는데, 서애도 동인의 영수로 서 동인과 서인에 각각 군자와 소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중 군자만을 뽑아 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서애는 재상의 입장에서 당파와 관계없이 인재를 발탁해 적재적소에 썼던 것이다.⁴⁰⁾

39) 전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주장했다. 이순신을 중6품인 정읍현감에서 정 3품 전라좌수사로, 권율을 정 5품인 형조정랑에서 정 3품인 의주목사에 발탁하고, 서북인에 대한 차별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辛忠元은 관리도 아니고 문벌출신도 아니었는데 조령에서 군공을 세우자 수문장을 시켰다가 절도사로 발탁했다. 柳祖詡이 私賤을 군사로 뽑아가는 것을 반대하자 “사천은 국민이 아니냐?” 하면서 양반들의 고식적인 태도를 비난했다(이성무, 「서애 류성룡의 생애와 사상」,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82쪽, 104-105쪽).

40) 이성무, 위의 논문, 66-72쪽.

이처럼 상반된 평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조선왕조가 주자학이 지배 하던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자학의 재상론에 비추어 재상 류성룡을 평가하는 일은 흥미로운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주자의 재상론은 君主一心成敗論과 君主聖學論으로 요약된다. 주자는 군주 일인에 의한 통치, 군주에 의한 정치운영을 인정하여 군주의 절대성을 자연의 질서로서 존중하였다. 그러나 군주의 專制정치, 독단정치는 비판하였다. 주자는 천하의 大小사가 모두 제왕의 裁決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비판하였다. 그는 군주는 剛明公正한 인물을 재상으로 선택하고 그와 더불어 정사를 의논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군주의 임무는 오직 재상을 논하는데 있고, 재상은 獻可替否, 즉 군주의 옳은 일을 적극 봉행하여 왕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군주의 권력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재상을 대표로 하는 신료의 발언권을 강조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주자는 천하의 일을 도모하는 최종결정권이 황제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상이 그러한 황제를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재상이 된 자는 聖賢의 正道를 상고하여 天理의 所在를 구하고 이를 통해 그 마음을 바꾸고 이를 기초로 미루어서 군주를 바르게 해야 한다⁴¹⁾고 하였다. 주자가 “2, 3명의 大臣들은 人主에게 賢否를 分別하고 人才를 進退시키며 天下의 일을 도모해야 한다”⁴²⁾고 하거나, “재상이 天下의 公議의 所在를 살펴야 한다.”⁴³⁾고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41) 『朱子大全』 권24, 與汪尙書書(己丑)“以求天理之所在, 既以自正其心, 而推之以正君心.”

42) 『朱子大全』 권28, 與留丞相(10월 12일)“蓋二三大臣者, 人主之所與分別賢否, 進退人才, 以圖天下之事.”

43) 『朱子大全』 권26, 與李誠父“尊兄平日立志持身, 固有定論, 然區區更願一意爲國, 無徇常日往還厚善之私, 深察天下公議之所在, 精慮而決行之, 使陰消於上, 而陽長於下, 政事脩理, 而國勢尊安, 不亦老先生平日之所望於後人乎?”

수 있다. 주자는 君主 一人이 권력을 장악하여 정치를 주도하기보다는 대다수 臣僚들의 公論을 집약한 재상 중심의 정치론을 지향하였다.⁴⁴⁾

주자의 재상론⁴⁵⁾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류성룡은 재상으로서의 말은 바 직무를 완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가?

주자 재상론의 핵심인 ‘공론의 통합자’로서의 재상이라는 점에서 류성룡의 대응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었다.⁴⁶⁾ 조선 사신(황윤길, 김성일)의 엇갈린 견해에 대하여 동인의 입장이 아닌 서인 측의 일본 침략 가능성을 예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축옥사로 동인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시시비비에 대한 명확한 판단으로 조정의 의론을 바로잡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붕당의 대립 속에서 재상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17세기 조선의 집권층은 주자학의 절대화를 통하여 人倫道德을 확립하고 체제 안정을 도모하였다. 광해군의 실용적이고 상황 중심적 정치 운영도 유교를 지배이념으로 하는 조선의 정치사상의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인조반정 이후 대명의리론이 중시되고 북벌론이 제기된 것 또한 주자학을 국정교시로 하는 지배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4) 守本順一郎, 『朱子學의 歷史的 構造』, 『東洋政治思想史研究』, 1967 ; 張立文, 『朱熹의 政治學說』, 『朱熹思想研究』, 1986 ; 金駿錫, 『17세기 正統朱子學派의 政治社會論』, 『東方學志』 67, 1990.

45) 주자가 언급한 송대의 재상은 조선의 재상과 동일시하기에 주저되는 점이 있다. 하지만, 재상이 국왕을 보좌하고 국정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고 상호 견줄만하다고 본다. 조선의 재상은 보통 정 2품을 관리틀 말하나 정 3품까지 포함시키기도 한다. 성종대 간행된 『대전속록』에 의하면 “봉명재상이 정 1품이면 도체찰사, 중 1품이면 체찰사, 정 2품이면 도순찰사, 중 2품이면 순찰사, 정 3품이면 찰리사라고 품계에 따라 칭호를 붙인다고 한다. 고종 때에 간행된 『대전회통』에 의하면 재상은 相은 정 1품 삼의정, 宰는 정 3품 당상관 이상으로 실직에 있는 자로 설명하고 있다.

46) 류성룡은 선조 22년(1589) 기축옥사 당시 예조판서에 있었고 곧 이조판서가 되었다. 그 이듬해 5월에 우의정이 되었다. 선조 24년 2월에 좌의정이 되었다.

즉 17세기에는 주자학의 이념이 강화되고 복인과 서인의 당파적 이해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었고, 이런 배경에서 편찬된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은 정통 주자학의 논리를 보수적으로 견지하게 되어, 서에 류성룡에게 보이는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현실 대응자세를 인정하기 어려운 바가 되었다.

IV. 맺음말

16세기 조선사회를 이끌었던 정치 지도자 서에 류성룡(1542-1607)의 생애와 17세기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 기술된 조선시대인의 시선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올바른 모습을 밝혀보려는 것이 본고의 목표였다.

류성룡은 중종 37년 풍산 류씨 류중영과 안동 김씨 사이에 3남으로 태어났다. 서에 집안은 고려시대부터 안동부 풍산현에 터를 잡은 유력가문으로, 류성룡은 선대로부터 노비와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그 토지와 노비는 전국에 분포되었다고 한다. 1558년 광평대군 후손인 전주 이씨인 李峒의 딸과 혼인했고, 1561년 퇴계 선생을 찾아가 성리학을 배웠으며, 1564년 과거에 합격하여 사환의 길로 접어들었다.

1568년 류성룡은 인종의 文昭殿 祔廟 논의에서 퇴계와 같이 인종과 명종은 재위한 왕이었으므로 문소전에 모셔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선조 22년(1589) 정여립 사건이 발생하자, 동인인 정여립 등을 치죄하는 과정에서 서인이 동인의 약화를 도모하였다. 류성룡은 정여립이 집으로 두 번 찾아 온 적이 있는데도 역모를 미리 알아보지 못한 죄를 들어 사직을 청하였지만 반려되었다.

1590년 5월 우의정을 시작으로 7년 10개월 간 재상을 맡아 조선을

이끌어갔다. 이때 이순신과 권율을 추천하고 진관체제를 확립하며 대동법을 실시하였고 봉당론적 調劑論을 주장하였다. 재상으로서 원칙과 현실을 적절히 조율하였다고 할 수 있다. 1593년 정월 명 장군 이여송이 평양을 탈환한 뒤 일본과 강화 협상을 맺으려는 명의 요구에 의하여 재상으로서 명에 주문을 올렸다. 이것이 이이첨과 조목에 의해 ‘主和誤國’으로 비판받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 1598년(선조 31년) 11월에 과직되면서 1599년 3월부터 옥연서당에 초옥 3칸을 짓고 거처하다가 1606년 4월에 세상을 떠났다.

류성룡은 퇴계 생전에 학문을 전수받고 이를 실천하고자 『퇴계집』을 간행하고자 하였다. 『퇴계집』의 편집 과정에서 류성룡은 동문인 월천 조목(1524-1606)과 각기 다른 편집원칙을 제시하면서 대립하였다. 선조 6년(1573) 류성룡이 중심이 되어 『퇴계집』 간행을 추진하였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자, 조목이 중심이 되어 草本을 정리하였다. 이에 류성룡이 刪節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노정되었다. 선조 33년에 조목의 주도로 산절하지 않은 草本을 기반으로 『퇴계집』이 간행되었다.

『퇴계집』의 간행은 단순히 편집원칙에 대한 제자들 사이의 이견대립을 넘어서서 퇴계학의 嫡傳 논의이면서 동시에 중앙정계에서 정과 간의 대립과도 직결되는 것이었다. 조목을 중심으로 한 예안의 향촌 사림은 북인과 연계하였고, 조목과 정인홍은 류성룡을 주화오국의 인물로 탄핵하였다. 아울러 이는 류성룡과 조목의 현실 인식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류성룡은 중앙집권화에 의한 향촌 지배를 지향하면서 조계론적 봉당관에 입각한 왕도 정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였고, 그 토대로서 『퇴계집』은 분명하고 간결한 정치교과서이기를 원했다. 반면에 조목은 산림으로서 『퇴계집』 전고수록 원칙과 향촌 주관의 문집 간행 욕구를 통해 향촌사회의 결집과 안정을 도모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편년체 형식이면서도 기전체의 열전에 해당하는 줄기를 수록하여 인물평을 제시하고 있는데,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에 실려 있는 서애의 줄기에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선조실록』은 광해군 정권 때 복인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 『선조수정실록』은 인조반정 이후 서인의 입장이 반영된 사서로, 동인인 류성룡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두 기록은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로 기축옥사에 대한 대응 과 임진년과 경진년 사이의 주화오국 그리고 재상으로서의 풍모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 가운데 기축옥사에 대한 대응과 임진년과 경진년 사이의 주화오국에 대한 비평은 최근의 연구를 통하여 해소가 되었다 할 수 있다.

재상으로서의 풍모에 대한 평가는 조선왕조가 주자학이 지배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주자학의 재상론에 비추어 재상 류성룡을 평가해 볼만하다. 주자의 재상론은 君主一心成敗論과 君主聖學論으로 요약된다. 주자는 군주의 절대성을 자연의 질서로서 존중하는 한편으로, 군주의 專制정치, 독단정치를 비판하였다. 주자는 천하의 일을 도모하는 최종결정권이 황제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상이 그러한 황제를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재상이 된 자는 聖賢의 正道를 상고하여 天理의 所在를 구하고 이를 통해 그 마음을 바꾸고 이를 기초로 미루어서 군주를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주자는 君主一人이 권력을 장악하여 정치를 주도하기보다는 대다수 臣僚들의 公論을 집약한 재상 중심의 정치론을 지향하였다.

주자의 재상론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재상 류성룡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었다. 조선 사신(황윤길, 김성일)의 엇갈린 견해에 대하여 동인의 입장이 아닌 서인 측의 일본 침략 가능성을 예지하지 못한 점, 기축옥사로 동인이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시시비비에 대한 명확한 판단으로 조정

의 의론을 바로잡지 못한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붕당의 대립 속에서 재상으로서 국가적 위기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서애 류성룡에 대한 조선시대의 인식과 평가는 녹록치 않다. 이를 조선후기 당쟁의 결과로서만 설명하는 것 또한 불충분하다. 류성룡의 진면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16세기 당대의 사회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함께, 17, 18, 19세기에 이루어진 류성룡에 대한 인식과 평가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송복, 『위대한 만남 서애 류성룡과 임진왜란』, 지식마당, 2007.
- 이덕일, 『난세의 혁신 리더 유성룡』, 역사의 아침, 2012.
-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 이재호 외, 『西厓 柳成龍의 經世思想과 救國政策』 上, 下 책보출판사, 2005.
- 守本順一郎, 『東洋政治思想史研究』, 1967. 未來社/김수길 옮김, 서울: 동녘, 1985.
- 張立文, 『朱熹思想研究』, 谷風出版社 1986.
- 구덕희, 「선조조 후반 정치체제의 재편과 정국의 동향」 『韓國史論』 20, 서울대 국사학과, 1988, 201쪽.
- 권오영, 「서애 류성룡 경학사상의 심학적 경향」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15-64쪽.
- 金駿錫, 「17세기 正統朱子學派의 政治社會論」, 『東方學志』 67,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0, 87-196쪽.
- 김학수, 「17세기 嶺南學派의 정치적 분화 - 유성룡 · 정경세학맥과 정구 · 장현광학맥을 중심으로 -」, 『조선시대사학보』 40, 조선시대사학회, 2007, 215-280쪽.

- 徐廷文, 「『퇴계집』의 初刊과 月川·西厓 是非」, 『북악사론』 3, 북악사학회, 1993, 215-265쪽.
- 설석규, 「선조대 정국과 이산해의 정치적 역할」, 『아계 이산해의 학문과 사상』, 지식산업사, 2010, 233-269쪽.
- 申奭鎬, 「朝鮮王朝實錄의 編纂과 保管」, 『韓國史料解說集』, 韓國史學會, 1964, 49-54쪽
- 辛承云, 「『퇴계집』 해제」, 『韓國文集叢刊』 解題 2, 민족문화추진회, 1998, 7-13쪽.
- 신현규, 「『朝鮮王朝實錄』 列傳 형식의 卒記 試考」, 『語文論集』 27, 1999, 중앙어문학회, 269-301쪽.
- 오종록, 「서애 류성룡의 군사정책과 사상」,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183-230쪽.
- 吳恒寧, 「<<宣祖實錄>> 修正攷」, 『韓國史研究』 123, 한국사연구회, 2003, 55-92쪽.
- 이성무, 「서애 류성룡의 생애와 사상」,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11-157쪽.
- 이태진, 「‘누란의 위기’ 관리 7년 10개월」, 『류성룡과 임진왜란』, 태학사, 2008, 159-214쪽.
- 이헌창, 「서애 류성룡의 경제정책론」,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107-182쪽.
- 정만조, 「서애 류성룡의 정치활동과 정치론」,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231-272쪽.
- 정재훈, 「퇴계 이황의 학과 형성과 역사적 위상의 정립 과정」, 『역사문화논총』 4, 2008, 역사문화연구소.
- 정호훈, 「爲民가 休息의 정치론 - 來庵 鄭仁弘의 정치의식과 현실인식 -」, 『역사와 경계』 81, 부산경남사학회, 2011, 259-287쪽.
- 최중호, 「『퇴계집』 刊行 과정에서의 西厓 柳成龍의 役割 - 退溪學派 내에서의 西厓 柳成龍의 位相 究明의 一端 -」, 『民族文化論叢』 40,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2008, 607-629쪽.
- 한명기, 「임진왜란 시기 류성룡의 외교활동」,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273-363쪽.

Abstract

A Proper Perspective to Take in Viewing Seo'ae(西厓) Ryu Seong-Ryong(柳成龍)

Do, Hyeon-Chul

Examined in this article is the life of Seo'ae Ryu Seong-ryong(1542-1607), a political leader who led the Joseon society in the 16th century, through the 『Annals of King Seonjo's days』 and 『Revised version of the Annals of King Seonjo's days』 of the 17th century, in order to obtain a proper and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man.

Ryu Seong-ryong was appointed to the seat of Wu'eui'jeong in May 1590, and led the government ever since for total of 7 years 10 months. Today he is considered as a wise minister who saved the country from its predicaments. But in the 『Annals of King Seonjo's days』 and 『Revised version of the Annals of King Seonjo's days』 he is portrayed rather negatively. The former reflected the perspective of the Northerners who led the Gwang'had-gun regime, and the latter reflected the position of the Westerners who were in charge of the government since the enthronement of King Injo. Both texts were mirroring the views of people who could not possibly depict him a wholeheartedly positive manner. These texts cited the purge of the Gi'chuk year, the political incident that took place between the Imjin and Gyeongjin years, and also his actions as a minister, as reasons for their negative description of Ryu Seong-ryong.

Ryu Seong-ryong as a minister should be evaluated by Ju Hi's own arguments regarding the role of the ministers. Ju Hi argued that the king must engage in studies of the past sages("Gunju Seong'hak-ron, 君主聖學論") and that the ministers should be placed in charge of governing. Ju Hi acknowledged the fact that the ultimate decisions concerning the governance

of the state should be left to the emperor, but was also highly critical of the emperors' despotic and arbitrary ruling of the country. He argued that the emperor must choose an impartial and fair individual, and then name him as a minister and also as a partner to discuss the issue of governing with. He argued that instead of leaving the emperor alone to rule the country, many officials should be consulted instead.

In the light of Ju Hi's argument on the role of ministers, Ryu Seong-ryong as a minister indeed left some things to be supposedly desired. In facing contradictory reports from official envoys who just returned from Japan(who were Hwang Yun-gil and Kim Seong-il), he failed to recognize the position of the Westerners who predicted the possibility of an invasion from Japan, and later he also failed to properly manage the clashing opinions inside the government during the Gichuk-year purge which cornered the Easterners. In other words, in the wake of conflicts waged among political parties, he was incapable of actively addressing the dynastic crises.

Evaluation of Seo'ae Ryu Seong-ryong has not been that positive. Yet trying to explain it away as a mere result of party conflicts of those days would not be fair either. In order to evaluate his life more appropriately, we need to be able to analyze the 16th century Joseon society, and also the evaluations made of Ryu Seong-ryong during the 17th, 18th and 19th centuries.

Key Word

Ryu Seong-ryong, Neo-Confucianism, ministers, Annals of King Seonjo's days, Revised version of the Annals of King Seonjo's days

- 논문투고일 : 2014.6.30. 심사완료일 : 2014.8.12. 게재결정일 : 2014.8.12.